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종 승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체이미지를 통한 장신구 연구
-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윤정인

신체이미지를 통한 장신구 연구

-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

김 종 승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윤 정 인


인 준 서

윤정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신혜경 (인) 

심사위원 김종승 (인) 

심사위원 최경미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의사 전달을 소리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 소통의 방식은 대화의 내용과 상황 그리고 전달자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며 이루어진다. 사람의 대화는 언어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으로 보이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화자와 청자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정이나 손짓 등으로 표출하고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청자는 자신이 화자의 정보와 감정을 전달받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세를 움직이는 등의 화자보다 소극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청자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각자의 자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언어로 표현하여 교감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대화에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여 유대감이 생기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언어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 방식에서 우리는 문자로 내용을 보내는 방식과 덧붙여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내용에 어떤 감정이 들어 있는지를 함께 전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내용에 포함된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은

문자로는 더욱이 전달하기 어렵다. 결국 서로 간의 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언어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감정이 전달되는 부분인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즉, 신체적 언어 (표정, 자세, 행동 등) 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외적으로 소극적 신호를 보내는 청자의 행동은 쉽게 보이지 않고 신체의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알 수 있기에 인간의 신체 형태를 차용하였다. 감정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얼굴, 눈, 손, 다리 등의 직접적인 감정표현 기관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소화 시킨다고 생각하는 몸통을 주된 표현기관으로 생각하고 현대장신구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자가 전달한 내용과 감정의 수용 또한, 신체적 소화가 일어나는 몸의 부분인 배를 중심으로 대화 중 상대방에게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가슴과 등 그리고 엉덩이까지를 표현하였다. 순은과 적동, 황동을 주재료로 하여 감탕을 이용한 늘이기, 내리기, 타출 기법 등의 망치 성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나무를 깎아 결합하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의 굴곡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제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작 단계인 대화를 통한 감정의 전달을 조형적으로 구체화하고 신체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 연구 작품으로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고찰하고 나아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성을 가진 신체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현대장신구를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방법	3
II. 본론	4
1. 커뮤니케이션	4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유형	4
2)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	7
2. 비언어커뮤니케이션	10
1) 공감 표현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10
2) 거울 신경	11
3)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유형	14
4)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사례	16
3. 예술적 모티브로서의 신체표현	18
1) 영혼의 모티브	18
2) 상징적 모티브	19
4. 작품 전개 및 분석	23
1) 제작의도	23
① 신체적 이미지 차용	23
② 금속 색상의 표현	23

2) 선행연구	24
3) 제작 과정	25
4) 작품 분석	29
① 신체이미지 차용에 따른 작품 표현	30
(1) 몸통 이미지를 차용한 표현	30
(2) 몸의 일부분 이미지를 차용한 표현	34
(3) 몸의 이미지를 변형한 표현	37
(4) 몸에 부분 이미지를 나무와 결합한 표현	42
Ⅲ. 결론	4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거리 유형	6
【표2】 표출 제스처와 우발 제스처	16

그림 목 차

【그림1】	로나 심슨 <Easy to Remember>	8
【그림2】	존 윌크스 부스 <Assassin in the theater>	9
【그림3】	거울신경	12
【그림4】	제스처 표현1	16
【그림5】	제스처 표현2	16
【그림6】	제스처 표현3	16
【그림7】	제스처 표현4	16
【그림8】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정	18
【그림9】	레오나르도 다빈치 <Vitruvian Man>	19
【그림10】	오귀스트 로댕 <Le Penseur>	19
【그림11】	제임스 크록 <Decentered Skin>	19
【그림12】	모린 코너 <Thinner than you>	20
【그림13】	로버트 고버 <Untitled>	20
【그림14】	콘스탄틴 브랑쿠시 <Prayer>	21
【그림15】	콘스탄틴 브랑쿠시 <Kiss>	21
【그림16】	브루노 마르티나찌 <Eye brooch>	22
【그림17】	브루노 마르티나찌 <Mouth brooch>	22
【그림18】	브루노 마르티나찌 <Gold ring>	22
【그림19】	실리콘 재료 준비	24
【그림20】	실리콘 실험 제작	24

【그림21】	크랙 표면 제작	25
【그림22】	퍼티 반점 제작	25
【그림23】	신체 모델링	26
【그림24】	신체의 앞 뒷면 성형	27
【그림25】	성형한 앞 뒷면 진공 댄	27
【그림26】	신체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한 진공 댄	27
【그림27】	감탕을 이용한 신체 형태 만들기	28
【그림28】	신체 형태 블룸 만들기	28
【그림29】	금속과 연결되는 부분에 나무 홈을 판 과정	28
【그림30】	나무와 금속 리벳으로 연결	28
【그림31】	나무 옆면에 옛지 코트 색 실험	28
【그림32】	인체 곡선을 탄 형태의 동판 준비	29
【그림33】	적동과 황동 판에 열 착색	29
【그림34】	황화칼륨 착색 준비	29
【그림35】	황화칼륨 착색한 은 작업	29
【그림36】	body on body1 착용 사진	33

작 품 목 차

【작품1】	body on body1	31
【작품2】	body on body2	31
【작품3】	body on body3	31
【작품4】	body on body4	31
【작품5】	body on body5	32
【작품6】	flesh ring1	35
【작품7】	flesh ring2	35
【작품8】	flesh ring3	35
【작품9】	belly on finger1	36
【작품10】	belly on finger2	36
【작품11】	belly on finger3	36
【작품12】	belly on triangle1	38
【작품13】	belly on square1	38
【작품14】	belly on triangle2	38
【작품15】	belly on square2	38
【작품16】	hollow boby1	39
【작품17】	hollow boby2	39
【작품18】	hollow boby3	39
【작품19】	hollow boby4	39
【작품20】	hollow boby5	39

【작품21】	hold me tight1	40
【작품22】	hold me tight2	41
【작품23】	belly on chest1	43
【작품24】	belly on chest2	43
【작품25】	belly on chest3	43
【작품26】	belly on chest4	43

I. 서 론

1. 연구 목적

사회를 이루어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은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 사회적 동물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발달 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울음이나 몸짓, 표정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표현방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실제로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중, 언어는 전체 의사소통의 10퍼센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자세, 걷는 모습, 냄새, 미소 등의 다양한 신체 언어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자가 정보를 얻는 것은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화자가 대화할 때 취하는 행동을 보고 얻는 정보가 더 많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말은 정제하고 꾸밈을 넣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맞추어 갈 수 있으나, 무의식적인 감정의 표현 반응은 신체 언어를 통해 나타내게 된다. 화자의 신체 언어의 정보를 보고 실제 표현하고자 한 감정을 읽어서 말로 표현된 정보와 함께 각자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후, 공감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며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적 언어에 집중하여 서로의 정보를 얻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본 연구에서 대화 과정 중 교감의 첫 번째 단계인 ‘듣고 이해하기’는 청자 입장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전의 모습 즉, 대화 중에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관찰하여 장신구로 조형화하고자 한다.

과거에 장신구는 부적과 같은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사진이나 어떤 물건(향수 등)을 보관하는 것, 그리고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런 장신구는 상업화가 진행되는 1960년대부터 자기표현을 위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때부터 장신구는 크기와 형태, 재료 그리고 제작기법에 대하여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있었지만 내포하는 의미도 많은 변화를 보여 준다. 이는 본인의 원하는 취향과 색깔에 따라 의복과 같이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발전해 왔다. 현대에 들어서는 주술적인 의미와 지위를 상징하기보다 자신의 성향과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¹⁾

위와 같이 현대 공예에서의 장신구는 단지 치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품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 신체적 모습을 금속을 이용해 조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장신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시각적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또 상징적 언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장신구 연구를 하고자 한다.

1)김계옥, 『장신구 개념과 기능의 확장-1 웨어러블의 개념으로 재해석된 장신구의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88

2.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상호 간의 소통방식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공감과 이해하는 방식 나아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본 과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동물 중 연구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대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기쁨, 분노, 불안감, 슬픔 등의 감정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감정표현을 듣고 이해하는 청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해석에 따른 신체의 일부분을 금속, 나무, 폴리머 클레이 그리고 실리콘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적합한 표현을 연구하였고,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최종작업에 적용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은과 적동 및 황동 등을 주재료로 하였고 다양한 망치 성형을 통해 입체적인 신체 이미지를 조형화하였고, 감정표현을 위해 자연스러운 댄 홀리기, 열 착색 기법을 이용해 색상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체의 부드러운 곡선은 나무를 조각한 후 금속과 자연스럽게 연결 할 수 있는 리벳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무 측면에 엷지 코트를 채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작품에 신체적 이미지를 통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커뮤니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유형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communication은 ‘공통되는 (common)’, 또는 ‘공유하다 (share)’라는 뜻의 라틴어인 ‘commuis’(파생단어 가운데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가 있다)에서 유래한다.²⁾ 커뮤니케이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생활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화자와 청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은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본인일 때를 말한다. 이때는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거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상황 설명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본인에게 소통하는 과정이기에 전달 의미에 대한 오해가 없다.

두 번째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너와 나’ 사이의 대화를 근간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전달되는 정보는 언어와 비언어 그리고 상징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1로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풍부한 피드백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오미영, 『커뮤니케이션_ 2013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2013, p-6

세 번째로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즉, 3 ~ 15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형성하여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다.

네 번째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위계질서가 형성 되어 있다. 소집단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이유에서 형성이 되었으며, 소집단보다 구성원이 더 많은 인원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의 지위와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화자는 한 명이지만 다수의 청자를 둔 공중 커뮤니케이션이다.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집단 사회에 구성원인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펼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한 공간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말한 커뮤니케이션 유형들과 달리 대면을 하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한 기술 수단(인쇄, 컴퓨터 등)으로 메시지의 송신자(=화자)가 다수의 수신자(=청자)에게 정보를 시 공간에 제약 없이 동시에 전달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 부분에서 있어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³⁾

참여하는 인원이 다수로 변화하면 점점 더 청자가 화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단계는 마주보고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과 함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보이는 공간과 거리에 따라서도 구별을

3) 오미영, 『커뮤니케이션_ 2013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2013, p-36~42 참고

지을 수 있다.

45cm 이내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매우 근접한 관계로 자신의 공간과 상대방의 공간이 겹쳐서 공유되는 거리이다. 대부분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친밀도가 높은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다. 45 ~ 120cm 사이에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친구 사이인 경우로 커피숍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가 말하는 화제를 듣고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120 ~ 360cm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상대방과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있는 거리를 말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거리 유형

거리의 유형	실제 거리	관계
친밀한 거리	45cm 이내	매우 근접한 관계
개인적 거리	45 ~ 120cm	일반적인 친구
사회적 거리	120 ~ 360cm	직장에서 공적업무 대화거리

단순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음성에 높낮이나 표정 자세 그리고 거리에 대하여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 전달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비언어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적당

한 거리가 요구된다.

2)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

스키너⁴⁾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거나 소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표현에 담긴 의미는 화자와 청자에게 각기 다르다. 화자에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언어 반응을 방출하는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반면, 청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가 언어 자극에 대하여 내놓는 반응에서 찾아야 한다.⁵⁾

이렇듯 소통에서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언어에 실린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청자가 보고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에 관해 미술에서는 언어가 반투명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반투명성(translucency)은 언어적 강조와 시각적 강조 사이의 균형이나 변동을 의미한다. 음성언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반투명성 개념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들리기도 하면서 비언어적인 소리로도 들리는 음성언어에 적용된다.⁶⁾

이 주제를 기반으로 현대미술에서 언어는 퍼포먼스 아트와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사운드 아트로 표현된다.

영상설치 미술가 로나 심슨 (Lorna Simpson)⁷⁾의 작품 ‘기억하기 쉬운 - (Easy to Remember) 2001’은 인간의 목소리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격자 모양으로 배치된 15개의 스크린에 작품 제목과 동일한 리처드 로저스의 사랑 노래를 제각각 흥얼거리는 15개의 입술을 하나씩 비춰준다.

얼굴 표정이나 손동작,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노래 가사와 멜로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지

4)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1904~1990)

5) B.F. 스키너, 스키너의 행동심리학, 2017, p-215

6)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2011, p-296

7) 미국의 영상설치미술가 (1960~)

에 대해서도 거의 알 수 없다. 잘린 화면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⁸⁾

정보전달에서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표현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로나 심슨의 작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림 2】 - <로나 심슨 (Easy to Remember)-2001>

의미전달에 있어 언어는 이미 특정하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자, 표현을 위해 서로가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언어를 '게임' 이라고 표현한 오스트리아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Ludwing Josef Johann Wittgenstein) ⁹⁾은 게임을 배우는 것은 적절한 규칙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언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가 표현한

8)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2011, p-298

9)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철학자 (1889~1951)

언어는 의미를 수행하는 것이다. 언어는 단지 사상의 순수한 운반체가 아니다. 언어 의미의 구조화된 네트워크와 추상적 상징(글자, 단어, 문장부호 등) 네트워크 그리고 그 상징을 이용하는 규칙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존재한다. 언어는 사상이 그 속에 구현된 문맥으로 읽히게 되는데 이때 문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¹⁰⁾

반복되는 단어와 띄어쓰기에 변화하는 문맥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은 미국 작가 케이 로젠 (Kay Rosen)¹¹⁾ 회화로 예를 들 수 있다.

케이 로젠의 <존 윌크스 부스 (John Wilkes Booth)-1987> 는 회화만 본다면 반복되는 단어만 있을 뿐이지만,¹²⁾ 제목과 연결시켜 문장을 읽는다면 ‘극장에서의 암살 assassin in the theater’의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문맥을 파악한다면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을 말하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ss ass
in in
the the
ater

【그림 2】 - <케이 로젠 (John Wilkes Booth)-1987>

10)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2011, p-285

11) 미국의 회화 작가

12) 위의 책, p-296

2. 비언어커뮤니케이션

1) 공감 표현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 또한 청자에게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비언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된다.¹³⁾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인 나누다 (share)에 감정을 붙이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형성 된다.

공감(sympathy)은 옛날에는 단순히 ‘함께 느낀다’는 뜻이었다. 감수성 훈련은 공감을 돕는다. 관찰자는 타인에게 관여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직관한다. 말하자면, 관찰자가 타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는 없으며, 이른바 타인에 대한 지식은 곧잘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한다.¹⁴⁾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중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을 그대로 청자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대한 전달 받는 의미와 감정을 근접하게 이해하려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경험한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된 차이로 언어와 행동 규칙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찰스 다윈 (Charles Robert Darwin)¹⁵⁾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신

13) 오미영, 『커뮤니케이션_ 2013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53

14) B.F. 스키너, 이신영 역, 『스키너의 행동심리학』, 교양인, 2017, p-213

15) 영국의 생물학자 (1809~1882)

경계의 작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며 이는 의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습관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¹⁶⁾ 정보를 종합해보면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인 신체적 언어는 화자와 청자 모두 감정표현의 습관적 행동으로서 본능이자 언어로서의 규칙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커뮤니케이션의 규칙성에서 보이는 의미 표현방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감정에 대하여 언어커뮤니케이션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행동 규칙으로 화자와 청자 서로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칙성을 지닌 언어와 행동을 보여야하고 청자는 이를 보고 들으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거울 신경

대화하는 중에는 다양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표현된다. 특히 말을 전달하는 화자의 측면에서 그 비중이 높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굴 부분에 눈썹을 들어 올리거나, 인상을 찌푸리기, 코를 찡긋하기, 입 꼬리 올리기, 얼굴이 빨개지기, 웃음 짓기, 울음 참기 등 손과 팔을 이용하여 상황에 부연 설명을 하는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화자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청자 또한 대화 중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자가 화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의도적 행동이 아닌 본능적으로 거울 신경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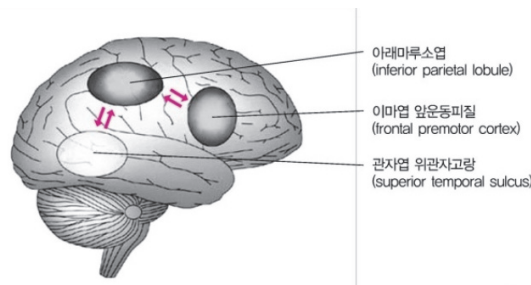
거울 신경이란 리졸라티 (G.Rizzolatti) ¹⁷⁾ 가 처음 발견한 신경으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을 때 활성화 되는 신경이다.

16) 찰스 다윈, 김홍표 역,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p-46

17)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이 거울신경은 이마엽에서 근육에 운동 명령을 내리는 운동피질에 있는데, 이 운동피질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근육에 직접 신경을 내보내는 일차운동피질이 있고, 운동을 계획하고 통괄하는 앞 운동피질과 보조운동영역이 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있거니와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한다. 이때 활동하는 세포는 관찰자가 관찰한 행동을 똑같이 직접 행동 할 때 작동하는 세포와 동일하다. 거울신경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작동한다. 거울신경에서 일어나는 과정 또한 관찰자의 의지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행동을 인지하면 관찰자의 뇌는 마치 그 행동을 직접 행하는 것과 같이 작동한다.¹⁸⁾



【그림 3】 - 거울신경

우리는 거울신경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방하며, 상대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할 수 있다.¹⁹⁾

18) 지식백과, 최현석, 『거울처럼 반영하는 네트워크』, 인간의 모든 감정, 2011. 4.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063&docId=1719806&categoryId=42063>.

19) 토니아 레이먼, 박지숙 역,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The power of body language)』, 21세기북스, 2009, p-376

화자의 말하는 이야기와 행동으로 보이는 감정을 청자가 집중하여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거울신경계가 작용하여 화자와 같이 눈썹을 움직이거나, 코를 찡긋하거나, 얼굴이 발개지는 등의 신체적 공감 반응으로 무의식중 모방 행동을 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

화자는 대화의 설명을 돕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과 청자의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사 행동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반응은 찰스 다윈의 글을 참고하면 화자와 청자가 표현하고자 한 의미가 다르다. 화자에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언어 반응을 방출하는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반면, 청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가 언어 자극에 대해서 내놓는 반응에서 찾아야 한다.²⁰⁾

대화에 따른 화자와 청자 모두 반응에 대해 표현한 의미가 다르지만, 내용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 간에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자라온 환경과 지식을 습득하는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모두 동일한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자인 내가 표현하고자하는 내용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곧바로 청자인 ‘나’에게 전달 될 수 있다.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유형들은 화자와 청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화자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규칙을 수반한 문맥에 맞게 설명해야 하며, 표현하고자하는 감정이 잘 들어날 수 있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청자는 그 내용과 감정을 전달 받았을 때 최대한 화자와 비슷한 상황의 내용을 떠올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 노력은 래포²¹⁾를 형성한다고도 말한다. 래포를 형성한다는 것

20) 찰스 다윈, 김홍표 역,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p-215

21) (rappot)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

은 서로 ‘맞춰’간다는 의미와 같다. 뭔가가 강하게 통하면서 서로의 행동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거울신경이 작용하여 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²²⁾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떤 관계와 방법으로든 타인과 연결이 되어있다. 이런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으로 래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다양한 언어적 규칙을 익히고,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지 그리고 청자는 어떤 감정에 대입하여 반응을 표현하는지를 익혀야 한다. 사람은 모두 화자이자 청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한다.

3)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대화에 표현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존재한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의도를 가진 제스처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제스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행동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기호를 만드는 몸짓이라 볼 수 있다.

의도를 가진 몸짓은 각자가 속한 사회에 따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사를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보면 문화의 차이에 따라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방법, 악수를 청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 의도를 가진 몸짓은 특정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한 몸짓, 어떠한 것을 상징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어떤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몸짓이 있다.

이와 달리 의도를 가지지 않은 몸짓은 머리를 긁는 행위, 감정에 따른 표

22) 토니아 레이먼, 박지숙 역,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The power of body language)』, 21세기북스, 2009, p-297

정변화, 체온의 변화로 얼굴이 발개지는 것,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거울신경이 작용하여 상대방을 모방하는 몸짓이 포함된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데즈먼드 모리스 (Desmond Morris) ²³⁾는 우발 제스처, 표출 제스처, 모방 제스처, 형식 제스처, 상징 제스처, 약호 제스처라고 분류 하였다.

모방 제스처는 가상의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동작 【그림4】 , 혹은 목이 마를 때 물 컵을 들어 마시는 동작 【그림5】 을 말한다. 형식 제스처는 모방 제스처를 생략하거나 또는 요약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상의 주된 양식 하나만을 선택하여 모방함으로써 그 대상을 나타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황소의 두 뿔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림6】 를 말한다. 상징 제스처는 상호간의 약속이 전제되는 상징기호적 속성을 지닌 제스처이다. 이 제스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림7】 ²⁴⁾ 이 다양한 제스처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비언어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몸짓의 발화의미보다 수신자의 해석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스처란 ‘관찰되는 몸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⁵⁾

이처럼 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하는 화자에게 집중이 되어있다면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는 청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1928~)

24) 성광수, 조광제, 류분수 외, 『몸과 몸짓 문화의 리얼리티』, 소명출판, 2003, p-68

25) 성광수, 조광제, 류분수 외, 『몸과 몸짓 문화의 리얼리티』, 소명출판, 2003, p-66



【그림4】- 제스처 표현1 【그림5】- 제스처 표현2 【그림6】- 제스처 표현3 【그림7】- 제스처 표현4

【표2】 표출 제스처와 우발 제스처

구분/ 기준	감정표현	의도성	의미작용
우발 제스처	없음	없음	있음
표출 제스처	있음	있음	없음

4)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사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신체 언어로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대화를 하는 중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몸의 기울기가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그리고 몸에 긴장된 근육들은 서서히 이완이 되어 어딘가에 기대어서 앉게 된다. 이와 달리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몸의 기울기는 멀어지면서 무릎과 발은 점점 몸의 바깥쪽을 향하고 몸 전체 근육은 언제든지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긴장한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양팔로 팔짱을 끼고 앉으며, 입을 가리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것이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화자가 표현하고자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정보, 대화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해석되는 양상이 모두 다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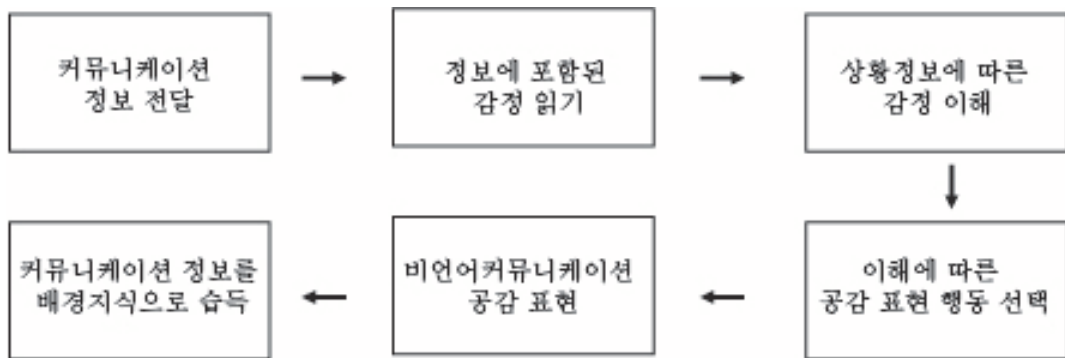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래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분으로 분해하고 몸에 나누어 저장하는 것과 같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음식을 입에서 잘게 나누고 으깨는 과정을 거친 후, 위에서 음식물에 맞는 세분화된 소화액을 분비하여 몸에 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분류하여 체내에 저장한다.

이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이해에 대입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 감정을 읽는다. 그리고 상황 정보와 합쳐진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의 반응을 선택한다. 공감을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인 신체적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교류 활동에 대하여 일어난 언어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자신의 기본 배경 지식으로 습득한다.

이처럼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과 감정을 청자가 보고 듣고 이해하여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따라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표현으로 말하는 화자에 대한 청자의 개인적 해석, 그에 따른 '관찰되는 몸의 움직임'을 신체의 부분을 차용하여 현대 장신구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 8】 -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정

3. 예술적 모티브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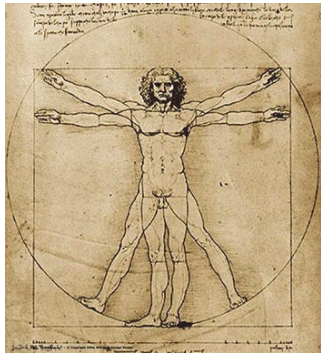
1) 영혼의 모티브

인간의 형상은 종교적인 이유로 구상 이미지를 금지하는 소수의 문화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미술 모티브 중 하나다. 26)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신은 인간을 형상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인간은 신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인체를 비율로 나눠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이상은 외면적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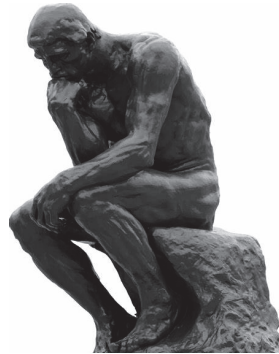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내면을 가꾸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완벽한 비율의 아름다운 신체라는 의미이다. 이런 모티브로 신체를 바라본 작가들은 대표적으로 다빈치 (Leonardo da Vinci) 27), 로댕 (Auguste Rodin) 28)이 있다.

26)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문혜진 역,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1, p-122

27) 르네상스 화가 (1452~1519)



【그림 9】
- 레오나르도 다빈치
- 인체 비례도
(Vitruvian Man)- 1480



【그림 10】
- 오귀스트 로댕
- 생각하는 사람
(Le Penseur)- 1880



【그림 11】
- 제임스 크룩
- 분리된 피부
(Decentered Skin)- 1995

이와 반대로 제임스 크룩 (James Croak) 29)의 분리된 피부 (Decentered Skin) -1995은 포스트 모던적 견해에서는 영혼은 없으며 몸만 존재한다는 것을 신체의 모티브로 표현했다.³⁰⁾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표현하는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무수한 변주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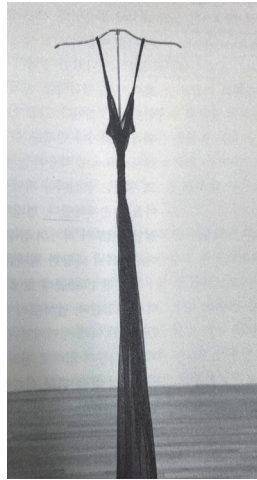
2) 상징적 모티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믿음과 정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포함해 몸속 깊이 담긴 문화적 가치를 표현해왔다. 미술사에서 구상은 때로 물질로서의 몸이라는 사상을 재현하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 섹슈얼리티나

28) 프랑스 조각가 (1840~1917)

29) 미국 시각 예술가 (1951~)

30)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문혜진 역,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1, p-118



【그림 12】
- 모린코너
- 당신보다 더
 마른
(Thinner than
You)- 1990



【그림 13】
- 로버트 고버
 - 무제
(Untitled)- 1990

유한성(mortality)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³¹⁾

이 중에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신체를 바라본 현대 미술가들은 특정한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 표현하고 몸을 중첩 시키거나 몸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는 몸을 대체하는 사물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내포된 의미를 표현한다.

【그림12】의 모린코너 (Maureen Conner)의 <당신보다 더 마른 (Thinner than You)- 1990>은 현대사회 광고매체에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여성의 마른 몸을 옷걸이에 걸린 허리가 한없이 조여지고 길게 늘어진 옷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 옷을 표현한 재료는 철로 제작되어 있다. 상징도 재료의 소재도 모두 다르게 대체하여 사람이 지향하는 여성의 몸을 비꼬는 작품이다.

31)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문혜진 역,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1, p-122

또 다른 상징적 작품인 【그림13】의 로버트 고버 (Robert Gober) <무제 (Untitled)- 1990>는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에서 일부분을 왁스로 제작하여 한 몸 인양 서로를 이어 붙여서 만드는 그로테스크한 작업으로 연출했다. 추상적인 의미인 시간의 유한성을 신체를 이용하여 상징적 표현을 한 이 재조립된 신체는 모두가 유한한 시간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치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콘스탄틴 브랑쿠시 (Constantin Brancusi)³²⁾의 작업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그림14】는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청동 조각이고, 【그림15】는 사랑하는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을 표현한 석상 작업이다. 브랑쿠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인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렇듯 신체를 대체하는 상징이 아니라 신체 자체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위하여 비례라는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오히려 의도적인 강조와 생략을 통하여 ‘실재감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닌 사물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4】 - 콘스탄틴
브랑쿠시
- 기도하는 사람
(Prayer)- 1907



【그림 15】 - 콘스탄틴
브랑쿠시
- 키스
(kiss)- 1907

32) 루마니아 조각가 (1876~1957)

인체의 부분을 가지고 작업한 작가 브루노 마르티나찌(Bruno Martinazzi)³³⁾는 처음부터 인체를 모티브로 작업하지 않았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다. 우리의 말, 아름다움, 기억들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인체를 모티브로 한 현대 장신구와 조각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작업 중에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림16】 눈과 【그림17】 입을 형상화한 브로치들과 손가락을 형상화한 【그림18】 반지 작업은 사람의 몸에 치장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하여 몸에 붙이거나 또는 손가락에 끼워지는 현대 장신구로 상징성을 가진다.



【그림 16】
- 브루노 마르티나찌
- 눈 브로치
(eye brooch)
- 1968



【그림 17】
- 브루노 마르티나찌
- 입 브로치
(mouth brooch)
- 1968



【그림 18】
- 브루노 마르티나찌
- 손가락 반지
(gold ring)
- 1969

33) 이탈리아 금속공예, 조각가 (1923~2018)

4. 작품 전개 및 분석

1) 제작 의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되는 신체 이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대화의 이해 방식을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소화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작품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과 나아가 상징성을 가진 새로운 신체적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현대장신구로서 기능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① 신체적 이미지 차용

무의식중에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인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중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손, 발 그리고 얼굴을 제외하고 몸의 기울기, 자세 등으로 상대방이 전달한 정보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 정적인 몸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감정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실제 신체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에 빗대어 몸통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작업에 차용한 신체 이미지는 소화기관이 있는 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배의 모습은 음식물을 섭취해 있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감정을 받아들여 팽창된 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신체의 곡선과 부드러운 굴곡이 보일 수 있도록 나무와 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대화중에 편하게 듣고있는 모습은 어딘가에 기대어 있는 듯한 신체의 전면부와 후면부의 모습을 차용하여 망치기법 중 타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② 금속 색상의 표현

매체인 금속 그대로의 색상을 가져가면서 신체의 반응인 체온이 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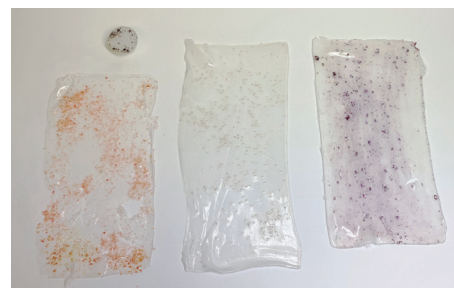
모습 그리고 알레르기 같은 자세히 관찰해야 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실리콘이나 퍼티를 이용하여 돌기나 반점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황화칼륨 착색과 열 착색 그리고 은 뱀 흘리기 등으로 색상표현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려 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자는 선행되는 작업으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실리콘과 퍼티를 이용하여 반점과 돌기의 형태로 드러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제작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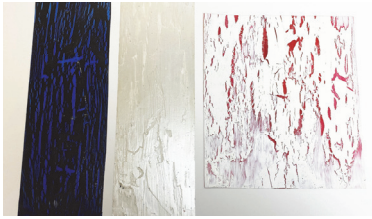


【그림 19】
- 실리콘 재료 준비



【그림 20】
- 실리콘 실험 제작

【그림 20】의 실리콘은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감정의 연약한 부분을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나, 제작 과정에서 쉽게 먼지가 붙고 성형 모양에 따라 잘 찢어지는 등의 문제점과 금속을 가지고 만든 신체 부분에 부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21】
- 크랙 표면 제작



【그림 22】
- 파티 반점 제작

알레르기 반응을 표현하고자 실험했던 크랙 표면과 파티는 【그림 21, 22】로 서로의 결속력이 떨어져 중간에 기본 물체끼리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금속 형태의 신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방법 외에 따로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실리콘과 파티를 가지고 제작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 표현 방식은 신체적 언어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 것보다 색감과 재료에 시선이 집중되어 감정이 더 부각 되므로 본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체의 형태 연구에 더 집중하고 금속 본연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착색 기법으로 작업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제작 과정

신체의 모습을 금속 타출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나타난 신체의 여러 변화들을 표현하기 위해 표면의 처리를 망치 터치가 있는 표면, 광내기의 표면마감이 진행된 표면으로 처리를 했다. 금속 성형기법의 하나인 타출기법(chasing, repousse)은 금속판을 두드려 부조적인 무늬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주로 감탕에 금속판을 고정시키고 정을 이용해 때리면서 세밀한 형태를 만들게 된다. 때려내는 기법이라 하여 타출기법이라고도 하며 같은 뜻을 가진 체이싱, 르푸세등 원어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한 체이싱은 주로 평면적인 모양을 새기는 것을 말하며 르푸세는 입체(고부조)의 형태를 만드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두 용어는 현재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정에 의해 금속평면에 부조나 문양을 만드는 작업을 통칭한다.³⁴⁾ 이 타출기법과 함께 금속 전체 유기적인 볼륨을 주기 위하여 내리기(sinking), 각도 올리기(rasing) 등의 망치 성형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작업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신체의 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작업이 보기에 편안하고 손에 쥐었을 때에도 날이 선 부분이나 이물감 없이 매끈한 감촉이 느껴지기 위해 모델링을 【그림23】과 같이 점토로 진행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몸통 모델링을 만들고 금속으로 제작했다. 둥그스름한 작업의 형태는 감정이 신체 내부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23】
- 신체 모델링

이 형태 성형을 위해 【그림 24, 25】과 같이 모래주머니, 모루를 이용하여 내리기(sinking), 각도 올리기(rasing)로 금속의 앞 뒷면을 만들고

34)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99



【그림 24】
- 신체의 앞 뒷면 성형



【그림 25】
- 성형한 앞 뒷면 진공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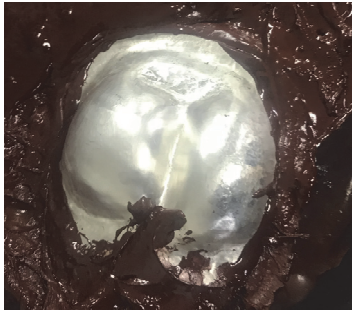
진공 상태의 은 땀을 진행하였다. 가볍고 단단함을 지닌 오브제로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과 매끈한 느낌을 주기 위해 표면에 있는 망치 질감을 스위스 줄과 사포로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26】 - 신체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한 진공 땀

또한 【그림 26】 은 신체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한 작업들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을 사용하여 반지로 제작하였다. 【그림 27, 28】 은 대화와 감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몸을 신체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어딘가에 기대어 있고 기울기를 지닌 몸의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을 차용하여 감탕을 이용한 타출 기법으로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때 재료는 순은을 사용하였으며 표면 마감은 사포와 화이어스케일³⁵⁾ 제거로 순수한 은의 느낌을 주기 위해 반짝이지 않게 처리했다.

35) 화이어스케일(fire scale)은합금의 표면에 나타나는 얼룩으로 작업과정 중 가열에 의해 형성



【그림 27】
-감탕을 이용한 신체 형태
만들기



【그림 28】
- 신체 형태 볼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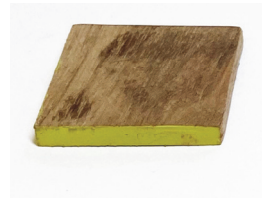
타 재료인 호두나무를 이용하여 금속과 연결시킨 브로치를 제작하였다. 금속과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위해 나무에 금속이 닿는 부분을 홈을 내어 형태의 볼륨감을 연결시켰다. 리벳으로 금속과 나무를 결합하였다. 이 브로치들의 나무 옆면은 가죽 마감 처리에 사용되는 엣지 코트(Edge Coat)를 사용하여 색을 칠했다. 금속 위에 정적인 몸을 표현하기 위해 순은을 사용하거나 은 뿔을 정리하지 않고 일부러 번지듯 흘려 표현했다.



【그림 29】
-금속과 연결되는 부분
나무 홈을 판 과정



【그림 30】
-나무와 금속 리벳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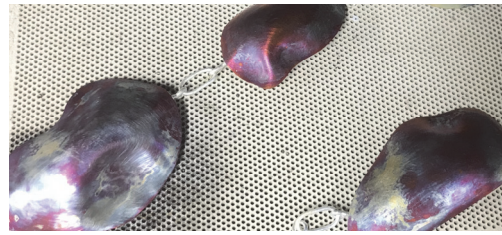
【그림 31】
-나무 옆면에
엣지 코트 색 실험

표면 마감으로는 열 착색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색감 변화를 의도 하였으며, 황동과 적동에 처리한 열 착색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은 위에는 황화칼륨 착색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32】

-인체 곡선을 딴 형태의 동판 준비



【그림 33】

-적동과 황동 판에 열 착색

황화칼륨 착색은 구리와 은의 표면에서 짙은 갈색 혹은 검정색으로 착색된다.³⁶⁾ 이때 착색은 붓으로 황화칼륨을 수채화처럼 물감이 번져가는 느낌으로 칠하여 찬물에 바로 담가서 멈추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그림 34】

- 황화칼륨 착색 준비



【그림 35】

- 황화칼륨 착색한 은 작업

4) 작품 분석

본 연구는 사람들이 래포를 형성하는 행위 즉,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공감을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소화 과정이 나타내는 배를 중심으로 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장신구로 조형화하였다.

연구자는 신체의 전체적 형태를 차용하거나, 일부분을 부각시켜 사실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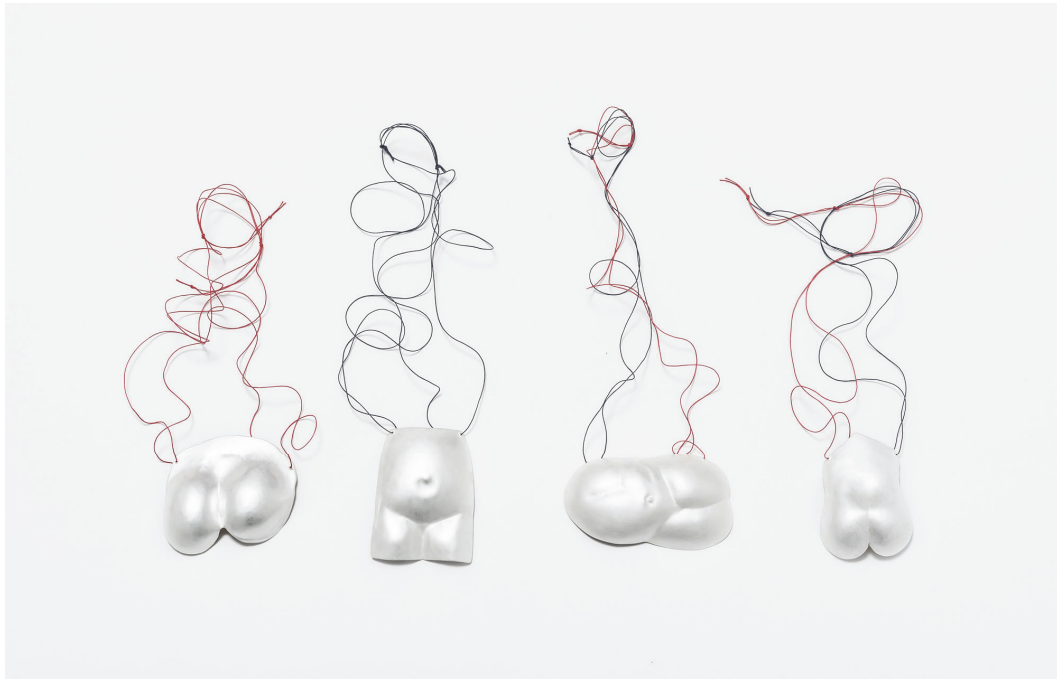
36)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269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주관적 해석에 따라 변형 혹은 왜곡된 몸의 형태 표현 그리고 몸의 부분 이미지를 금속과 나무를 결합한 표현을 통해 나누어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① 신체이미지 차용에 따른 작품 표현

(1) 몸통 이미지를 차용한 표현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껴 어딘가에 기대어 있거나 집중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는 긴장하거나 편안한 상태의 모습을 관찰한 후, 몸통의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작품의 크기는 손바닥을 넘어가지 않게 제작하였으며 타출기법을 통해 몸의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하였다. 모루를 이용한 각도 올리기, 내리기 등의 단조 성형으로 형태의 볼륨감을 나타냈다. 상대방의 감정과 대화의 내용을 들어주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금속에 색은 넣지 않고 0.8t 두께의 순은을 망치 작업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마지막에 화이어스케일 과정을 거쳐 하얗게 마무리하였다.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끼 넣고 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목에 걸었을 때 몸통의 중앙 부분이 명치 부분에 올 수 있는 팬던트로 제작하였다.



【작품 1, 2, 3, 4】
<body on body>

body on body1, fine silver, thread_55x350x25(mm), 2019

body on body2, fine silver, thread_50x425x25(mm), 2019

body on body3, fine silver, thread_90x450x20(mm), 2019

body on body4, fine silver, thread_50x420x25(mm), 2019



【작품 5】
<body on body5>

body on body5, fine silver, thread_55x900x25(mm), 2019



【그림 36】

- body on body1 착용 사진2

(2) 몸의 일부분 이미지를 차용한 표현

<flesh ring> 【작품 6, 7, 8】은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때 청자는 화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무의식중에 표현하게 된다. 저질로 몸이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럴 때 배에 살이 증척되면서 구겨지는 부분을 부각시켜 반지로 제작하였다. 정과 감탕을 이용하여 순은에 타출기법을 진행한 작품이다. 사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망치 표면을 지우지 않고 반지가 착용 된 모습보다 뱃살을 표현한 부분을 앞쪽으로 기대어 놓여있는 것이 더 안정감 있는 반지로 제작했다.

평면적인 느낌에서 변화를 준 <belly on finger ring> 【작업 9, 10, 11】은 뱃살에 볼륨을 줘서 표현한 작업이다. 위와 아래 면을 각도 내리기, 올리기로 각각 성형하여 제작하고 뿔뿔으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제작하였다. 내부가 진공 상태로 비어 있어서 보이는 크기에 비해 가볍고, 평면으로 제작한 반지보다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어 착용감 또한 안정적이다.



【작품 6, 7, 8】
<flesh ring>

flesh ring1, fine silver_35x88x30(mm), 2019

flesh ring2, fine silver_63x45x37(mm), 2019

flesh ring3, fine silver_78x45x46(mm), 2019



【작업 9, 10, 11】
<belly on finger ring>

belly on finger1, fine silver_32x65x38(mm), 2019

belly on finger2, fine silver_25x45x45(mm), 2019

belly on finger3, fine silver_43x25x45(mm), 2019

(3) 몸의 이미지를 변형한 표현

<belly on square&triangle ring> 【작품 12, 13, 14, 15】는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하여 감정과 내용을 서로에게 맞게 소화 시키는 것을 표현하였다.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의 자세를 소화하는 배의 형상으로 튼질하여 오브제로서의 장신구로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 작품은 링 부분이 삼각형, 사각형으로 실제 착용하기에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다. 겉으로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상태일지라도 화자가 설명하는 감정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나타내는 청자의 입장을 위로하였다.

<hollow body> 【작품 16, 17, 18, 19, 20】은 몸통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손에 쥐었을 때 신체의 곡선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촉감을 연상시켜 편안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오브제 작품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 느껴지는 불안한 감정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이 오브제를 통해 작품을 직접 만져서 완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형태로 제작하였다. 다른 작품과 달리 0.8t가 아닌 1.0t 적동으로 제작하여 적당한 무게감을 주고 매끈한 촉감을 위해 스위스 줄과 사포를 이용하여 망치표면을 없애고 한 손에 들어올 수 있게 제작한 작품이다.

<hold me tight1, 2> 【작품 21, 22】는 피부가 얇은 부분들은 체온 변화에 따라 색이 쉽게 변한다. 이런 피부가 얇은 부분 즉, 목과 쇄골 부분의 굴곡을 변형시킨 작업이다. 감정에 따라 물드는 피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고자 적동과 황동을 열 착색으로 색이 번지는 느낌을 주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은 땀을 일부러 번지게 하여 다양한 감정의 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2, 13, 14, 15】
<belly on square&triangle ring>

belly on triangle1, fine silver, silver_60x48x27(mm), 2019

belly on square1, fine silver, silver_50x35x23(mm), 2019

belly on triangle2, fine silver, silver_60x48x27(mm), 2019

belly on square2, fine silver, silver_27x43x30(mm), 2019



【작품 16, 17, 18, 19, 20】
<hollow body>

hollow body1, copper_80x33x27(mm), 2019

hollow body2, copper_57x40x20(mm), 2019

hollow body3, copper_40x73x35(mm), 2019

hollow body4, copper_42x53x32(mm), 2019

hollow body5, copper_57x40x27(mm), 2019



【작품 21】
<hold me tight1>

copper, brass,silver_215x225x23(mm), 2019



【작품 22】
<hold me tight2>

copper, brass, silver, walnut_200x420x25(mm), 2019

(4) 몸의 부분 이미지를 나무와 결합한 표현

<belly on chest> 【작품 23, 24, 25, 26】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여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나타낸 작업이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무와 금속을 연결하기 위해 흠을 파서 신체의 굴곡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슴에 달리는 브로치 작품으로 금속이 표현할 수 있는 엷지 코트를 옆면에 발라 대면에서 바로 볼 수 없는 색이 숨겨져 있다. 이는 착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장치는 대화에서 언어커뮤니케이션의 정보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감정 정보에 적절히 집중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읽는다는 것 표현하였다.



【작품 23, 24, 25, 26】
<belly on chest>

belly on chest1, fine silver, edge court, walnut_45x110x17(mm), 2019

belly on chest2, fine silver, edge court, walnut_54x80x23(mm), 2019

belly on chest3, fine silver, edge court, walnut_60x70x15(mm), 2019

belly on chest4, fine silver, edge court, walnut,

potassium_55x65x18(mm), 2019

Ⅲ. 결 론

우리는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을 얻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나아가 그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연결까지 형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이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간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매체들은 빠른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서로의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정보전달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인 신체적 언어로 전달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얻는 정보는 문자로 전달되는 것보다 표정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 얻는다.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청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과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관찰한 뒤, 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신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티브로 예술 속에 존재해왔다. 신체를 모티브로 몸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금속을 통해 조형화하고자 하였다. 신체는 실제 소화가 일어나는 배를 중심으로 가슴, 등, 엉덩이에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과장과 생략을 거쳐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영양소로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작품을 통해 이를 새로운 조형 언어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신체 이미지 표현은 은과 적동 그리고 황동에 타출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망치 성형으로 조형화하였다. 대화의 내용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신체의 모습을 표현한 펜던트와 반지, 상대방의 감정을 몸에 담아 부풀어 있는 몸을 표현한 오브제, 착용하는 링 부분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반지 등은 대화의 전달이 청자의 자아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표현했다. 끝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언어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신체적 언어인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신체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신체'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장신구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성광수, 조광제, 류분수 외, 『몸과 몸짓 문화의 리얼리티』, 소명출판, 2003.

오미영, 『커뮤니케이션_ 2013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문혜진 역,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1.

찰스 다윈, 김홍표 역,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토니야 레이맨, 박지숙 역,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The power of body language)』, 21세기북스, 2009.

B.F. 스키너, 이신영 역, 『스키너의 행동심리학』, 교양인, 2017.

학위 논문

김계옥, 『장신구 개념과 기능의 확장-1 웨어러블의 개념으로 재해석된 장신구의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88.

김현주, 『인간의 감정표현을 시각화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_얼굴표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희선, 『몸짓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형상화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박민정, 『인간의 감정을 형상화한 인체표현 연구_회.노.애.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상희,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에서 보이는 '불안'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표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주현, 『촉감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여아람, 『소통을 시각화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_감정표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정은희, 『금속 장신구를 통한 자아의 감정표현에 관한 연구_자아를 담는 틀 토르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학술 논문

이광선, 『아르데코 현대장신구의 시작』, 한국기초조형학회, 제 19권 6호,
2017, p-508 ~ 514.

웹사이트

최현석, 네이버 지식백과, 『거울처럼 반영하는 네트워크』,
인간의 모든 감정, 2011. 4.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063&docId=1719806&categoryId=42063>.

ABSTRACT

Study on Jewelry through Body Image Focused on Nonverbal Communication

Yun Jeong I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s social animals, human beings are similar to other animals as they communicate through sounds or actions. Such communication methods take place as people listen to the content and circumstances of a conversation while watching and responding to the messenger. Human communication is an exchange of signals between the speaker and listener, a complex combination of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displayed through action. The speaker uses actions, such as facial expressions or hand gestures, as a part of nonverbal communication to deliver their emotions and express the situation through linguistic communication. The listener that receives the information provides nonverbal communication signals that are smaller than the speaker's signals, such as nods or changes in their postures, to indicate that the speaker's information and emotions have been well

received.

Understanding a conversation involves the interpretation of the speaker's emotions that vary by the listener's ego, formed through the various social environments the listener has experienced. It also consists of the interaction through which one expresses their emotion externally using physical language. Since this process takes place in a conversation, the speaker and listener could sympathize with each other's thoughts, thereby creating a sense of bond and forming a social relationship.

As civilization developed, it has become possible to use text, a linguistic communication tool, to deliver messages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emails and online messenger services. Using this method, people deliver their messages through text and use emoji to express the emotions associated with their messages. Such actions show that the information delivered using text alone cannot convey the speaker's feelings related to the information. Both linguistic and nonverbal communication, physical languages, such as facial expressions, postures, and actions that deliver emotions, are necessary for communication.

This work employed the form of an entire human body because the actions of a speaker who delivers passive signals are externally difficult to spot and could only be perceived through close examination of body parts.

This work excluded the face, eyes, hands, and legs, which expresses emotions most freely. Instead, it used jewelry to indicate the torso where the emotions of the speaker are digested.

With the stomach, where the physical digestion and the digestion of the

contents and emotions of a conversation occur, at the center, this work also depicted the chest, which becomes closer and farther away in conversations, the back, and the hips. Glue, pitch, and chasing tools were used on fine silver, copper, and brass. Various methods, including wood carving, were employed to portray the natural curves of the human body.

This study used physical images to portray the act of listening and understanding in a conversation,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 relationships.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essence of social bonds and explore the function of contemporary jewelry as a means to express a new and symbolic physical language.